

경제

대한통운 인수 롯데 부상... 신세계 '술렁'

유스퀘어 등 부동산 '눈독' 분리 매각엔 반대 광주지역 유통시장 독점 불가피 ... 업계 비상

금호터미널을 포함한 대한통운 인수전에서 롯데가 경쟁사인 포스코와 CJ보다 높은 가격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광주지역 유통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만약 롯데가 인수할 경우, 금호터미널 소유의 건물에 입주해 있는 광주신세계는 영업환경이 크게 제약받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또 신세계와 롯데가 양분하고 있는 광주지역 유통시장을 롯데가 독점하게 돼 부작용도 우려된다.

17일 광주지역 경제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내 물류업계 1위인 대한통운 인수전에 포스코·롯데·CJ그룹

등 3사가 참여한 가운데 물밑 정보전과 신경전이 뜨겁다. 이들 3개사는 현재 실사를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대한통운 인수가격을 대략 1조5000억원에서 2조원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3개사 모두 자금력과 명분을 내세우며 인수를 자신하고 있어 인수합병(M&A) 전문가들도 선불리 승자를 점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롯데가 경쟁사인 포스코와 CJ보다 예정가를 높게 제출한 데다 최근 대한통운의 종합물류전산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하면서 한 발 앞서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롯데쇼핑은 33만2046주(대한통운 발행주식 수의 1.5%)에 대해 '롯데백화점'(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약 100억원의 차익을 챙길 수 있다. 롯데그룹으로서 '롯데백화점'을 통해 경쟁사인 포스코와 CJ에 비해 100억원을 더 싸게 대한통운을 사들일 수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대한통운과 금호터미널의 분리 매각에 대해 롯데가 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매각 주간사 측은 인수 후보들에게 금호터미널·아시아나공항개발·아스

금호터미널은 광주 유·스퀘어를 비롯해 북포·순천·여수터미널과 대구·포항·유성·전주 터미널 등 전국 주요 도시의 터미널 18개를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롯데의 인수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지역민들은 안타까움과 좌담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금호그룹의 모태인 금호고속의 터전인 데다 지역 관문이라는 상징성을 가진 금호터미널이 영남 기업으로 넘어간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광주지역 유통시장의 술림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백화점시장은 광주신세계가 48%, 롯데 36%, 현대 16%가량 차지하고 있는데, 롯데 중심으로 지각변동이 일어날 경우 롯데가 80% 이상 독점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금호터미널 등 대한통운 매각은 오는 5월13일 본입찰을 하고, 같은 달 16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한다. 같은달 27일 우선협상대상자와 양해각서(MOU)를 맺은 뒤 6월말까지 최종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주간 증시 포커스

KOSPI가 4월 옵션만기일을 무난히 넘기며 2,100선에 안착하는 모습이다. 주가 상승국면의 수급 주체였던 외국인 매수세가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KOSPI는 지난주 역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다. KOSPI는 2,140pt까지 올라서며 사상 최고치를 또 다시 경신해, 한국 주식시장의 역사를 연일 다시 쓰고 있다.

지난주에도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부진과 골드만삭스의 파생상품 관련 위법판매 조사 가능성 발표, 일본의 원전 사고등 급격상과 그리스의 채무 재조정 이슈 등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하였지만, 약세성 이벤트에 대해 충분히 내성을 기른 시장 참가자들만 인해 견조한 주가 흐름이 유지되었다. 고점 경계에는 따른 차익실현 등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화학업종을 중심으로 한 지수 상승세는 판단이다.

하지만 주가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체감 정도는 보유 종목에 따라 극명하게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업종별·종목별 차별화가 극대화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데, 올해 국내 증시는 이러한 차별화 양상이 지난해 보다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차별화 양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을 뒷받침할 근거는 실적과 수급이다.

자동차 업종의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 증가세가 지속되며 해외 공장들의 가동률이 100%를 넘어가고 있고, 에너지·화학업종의 경우 제품가격 강세와 함께 일부 대기업에 따라 발생한 한사 이익까지 실적 개선으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두 업종 모두 실적 호조세가 유지되고

코스피 상승세 지속 업종별 차별화 실적기반 車·에너지·화학업종 유망

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수급적인 차원에서는 주식형 펀드의 환매 및 옵션만기 물량의 양호한 소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지난 3월과는 달리 상승세를 저해할 만한 대규모 악재가 없다는 것이 긍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에서 기술적인 부담감과 고점 경계감을 불식시킬만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는가라는 의문은 여전히 추가 상승의 걸림돌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 중순 이후 한 달 만에 10% 이상의 급등세를 나타낸 데다, 글로벌 주요 증시의 상승흐름도 주춤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단기적인 탄력둔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꾸준히 대비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동안 지수 상승을 주도해왔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강도가 크게 둔화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종목별 물량소화 내지는 단기 조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물론 우호적인 글로벌 경기흐름을 감안할 때 추세적인 지수 상승 흐름을 크게 벗어날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조정시 주요 종목들의 매수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최근 상승에 따른 기술적 부담을 덜어내는 숨고르기는 필연적인 전망이나 실적과 밸류에이션이 이어가는 코스피의 상승 추세는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에 연이어 발표될 미국의 주택지표들이 호전될 경우 선진국들의 출구전략 실시에 대한 경계심이 살아날 가능성도 있지만, 실제 출구전략에 나설 수 있을 만큼의 주택시장 회복에는 많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기 출렁거림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장 대응 관점에서는 실적 기반의 차별화 장세를 염두에 둔 투자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며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는 자동차·에너지·화학업종,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되는 보험·반도체·철강업종이 여기에 해당한다.

박종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

지역 아파트 시장 회복세 뚜렷

광주, 3월 2976건 거래 ... 3개월 연속 상승 전남도 2314건 ... 15개월만에 거래량 최고

광주·전남지역 아파트시장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전남 모두 올들어 3개월 연속 아파트 거래량을 늘렸고, 전남은 지난 2009년 12월 이후 15개월만에 거래량이 가장 많았다.

17일 국토해양부가 내놓은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3월 신고된 광주지역 아파트 거래 건수는 2976건으로 전년(2544건)보다 17.0% 늘었다. 최근 4년(2007~2010년) 같은 달 평균(2539건)보다도 17.2% 증가했다. 올들어 1월 2122건, 2월 2544건 등 3개월 연속 거래량이 늘어난 것이다.

그동안 미분양 때문에 골치를 앓았던 광주시 서구 치평동 갤러리303 아파트가 올들어서만 157가구가 거래되며 미분양 물량을 크게 줄였다. 또 광



에버랜드 개장 35주년 축하 불꽃 쇼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가 개장 3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 일 전남인 16일 밤 펼친 1만5000여발의 화려한 불꽃 쇼. 에버랜드는 1976년 4월17일 출발해 지난달까지 총 입장객 1억6000만명을 기록하고 있다. /연합뉴스

'10만원 미만 연체' 신용평가에 반영 안한다

개인신용평가사 소액이나 단기 연체자들에게 대한 불이익이 줄어들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서민금융 기반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10만원 미만의 연체정보는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90일 미만의 연체 경력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기간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경미한 연체사실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 서민들의 금융회사 이용이 곤란해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또 신용평가사 신용조회 기록정보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의 개인워크아웃을 성실하게 이행한 서민에 대해서 신용평가사 거점이 주

**중소인 교류 공간
금호월드 무료 개방**

금호월드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회의실을 무료 개방해 상호 정보 공유 및 업무 협조 등 상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호월드는 광주중심가에 위치하고 터미널과의 근접성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업무 미팅이나 소회의가 가능하다.

회의실은 약 30명이 이용할 수 있으며 빔 프로젝터, 무선마이크가 설치돼 있다. (문의) 금호월드 관리단 사무실 062-350-8000. /최재호기자 lion@

올해 PF 대출 25조 만기 건설업계 5~6월 '위기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가운데 25조원의 만기가 올해 돌아온다.

특히 주요 채권은행의 대출 만기가 2분기에 집중돼 5~6월 중 건설사의 'PF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PF 대출은 은행권에서 15조원, 비은행권에서 10조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 PF 대출 잔액 66조원의 약 3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특히 금강원이 최근 건설사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해 PF 대출의 만기도래 시기를 집계한 결과 2분기에 만기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기업평가 역시 36개 주요 건설사가 상반기에만 13조8000억원의 PF 대출금을 갚거나 연장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6조1000억원의 PF 대출이 남은 우리은행은 5~6월 중 1조3000억원의 만기가 돌아온다. 국민은행도 이 기간 1조원의 PF 대출 만기가 기다리고 있다. 8조1000억원의 PF 대출채권이 있는 농협은 전산관리가 안 돼 있어 시기별 만기도래 금액을 집계하지 못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올해 PF 대출 3조5000억원의 만기가 돌아오며, 이 가운데 1조5000억원이 회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엔틱가구전
4월 30일까지 특별가 판매
식탁·좌탁·거실TV장·침대

이태리 직수입 → 도소매
밀라노 5개사 한국총판

신상품
다량 전시

화정동점과 본점상품은 겹치지 않습니다.

ITALY

화정동점 | 서구 화정동 307-1 화정역사거리(메디피아 신축병원 옆 400평) | 본점 | 동구 장동 58-15 문화전당 장동로타리 (홍스페이스 가구빌딩)

SPACE
홍스페이스
062-226-7567